



수출시장 개척, 98년은 2천년 향한 도약의 해로

태평양종합산업(주)

1973년 설립된 태평양종합산업(주)(대표이사 손이수)은 유리병 제조를 근간으로 하여 국내 굴지의 용기종합메이커로 성장해 왔다.

화장품 초자용기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태평양종합산업(주)은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해 70년대 후반 플라스틱 및 금속용기 생산설비를 갖추고 주류병 및 식음료병과 함께 수지·금속 용기도 함께 제조, 판매하는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고 있다.

주력 사업부문인 초자용기의 경우 80~90년대에 걸쳐 미국의 WHEATON사 및 일본의 第一硝子 등과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 최고의 기술 수준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평양종합산업(주)은 생산부문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 98년도에는 1천만불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주요제품인 화장품 용기의 고급화를

위한 자체 표면처리(불산·코팅·인쇄) 설비를 갖추고 고부가가치의 제품생산에 집중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용기 색상의 다양화, 고급화된 제품의 생산이 가능케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개발의 노력과 함께 지난 97년도에는 세계 4번째의 화장품용기 전용로인 일산 50톤 규모의 FLEX-MELTER의 신축을 완료해 설비부문에서도 최고의 초자공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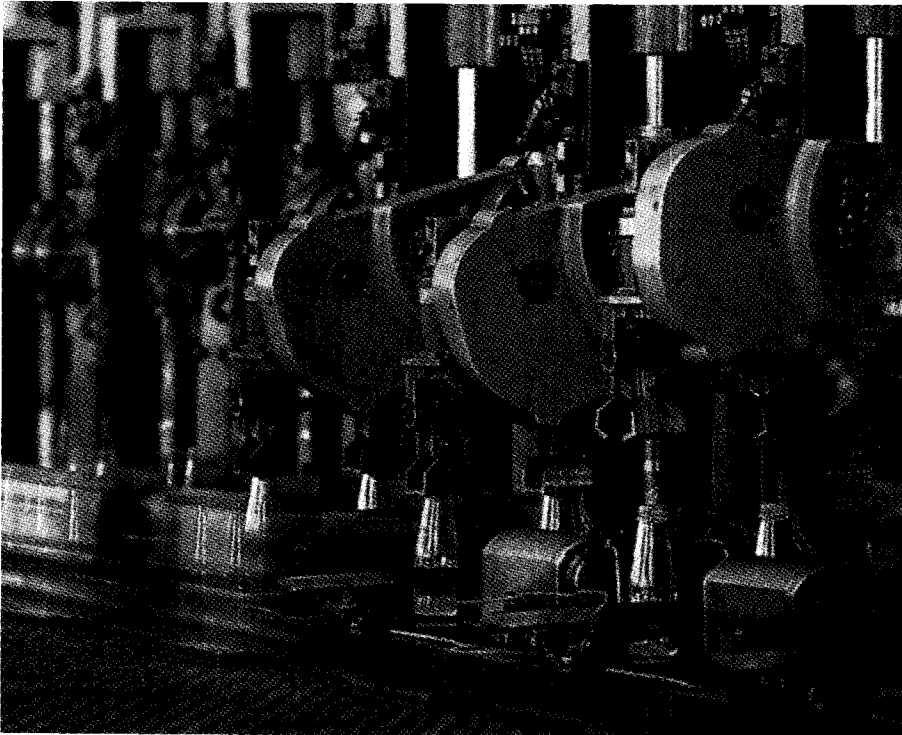
FLEX-MELTER의 도입으로 기포의 최소화 및 보다 투명하고 맑은 유리제품의 생산이 가능해 졌으며 함께 도입된 COLOR FEEDER와 2섹션 M/C은 소비자의 색상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및 소량다품종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태평양종합산업(주)은 지난 95년 취득한 ISO 9002 인증 시스템을 정착시켜 SOFTWARE 차원의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도



▲ 태평양종합산업(주)에서 생산하는 유리병 제품들





◀ 태평양종합산업(주)
유리병 생산라인

지속함으로써 경쟁력의 원천인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 97년 태평양종합산업(주)의 매출액은 5백90억원으로 96년도 대비 -13%의 외형이 감소되었다. 이는 주력품목인 화장품의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 및 용기의 단순화에 따른 후가공 공정의 생산감소에 기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 감소에도 불구하고 95, 96년의 연속 경상적자에서 벗어나 다소의 흑자를 실현할 수 있었음은 위에서 언급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수요향상, 불량률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 할 것이다.

98년도는 국내경제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많은 한계기업들의 정리와 함께 전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IMF 체제의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처절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에 태평양종합산업(주)은 시야를 해외로 돌려서 수출확대에 전심전력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쌓아 올린 품질력을 바탕으로 수출시장에 주력함으로써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올해 98년은 다가오는 2천년대를 대비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사의 최고 목표는 세계 일류의 화장품용기 전문메이커로 성장하는 것이다.

지난 26년간 축적해 온 태평양종합산업(주)의 기술력과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전 임직원의 일치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이러한 꿈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